

얼 굴 로

일 하 는

거, 아 니

잡 수 ?

직장에서도 계속되는 외모 압박 · 평가 · 차별 외 모 피 로 사 회 S T O P

‘좋은 인상’ ‘성실함’ ‘신뢰감’ ‘자기관리’라는 말로 포장된
구직자/직장인 외모평가 언제까지 계속 되어야하는 걸까요?

“립스틱 좀 발라라”

“화장은 예의 아니야?”

“치마 좀 입고 다녀”

『예의』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외모관리
외모지적 안 하는 게 『예의』입니다.

외모가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문화 일할 땐 외모관리 말고 일만 하는 직장문화

‘사진 없는 이력서’ 사용으로
차근차근 변화를 만들어가요



이 력 서

사 진	인 적	
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red; padding: 5px;"> 사 진 (3cm x 4cm) </div>	이름	
	성 별	
	주민번호	
	주 소	
근 무 조 건	출근 가능일	
	근무가능시간	
	운전 면허 (원동기포함)	



"이력서를 백 군데 이상 제출했는데 몸무게를 적으래요. 차마 못 쓰겠는 거예요. 면접 가기 전에 제 이미지를 판단해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. [...] 갑자기 체중을 뺐더니 건강에 이상이 와서 귀가 잘 안 들려 한의원에 갔어요." (30대 초반, 직장인 여성)

"제가 피부에 흉터가 좀 있는데, 피부과를 가는 게 어떠냐, 입 꼬리가 내려가 있으니깐 올리는 성형을 하는 게 어떠냐. 저는 당장 돈을 벌려고 취업하려고 하는 건데 없는 돈을 어디서 구해서 하라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" (20대 초반, 직장인여성)

*2016년 한국여성민우회 직장인 인터뷰 중

'지원자 사진을 평가에 반영하는가?' YES (51.7%)

남성(6.2%)보다 여성(40.3%) 채용 과정에서 외모를 더 많이 본다

*2015년 기업 인사담당자 880명 설문조사, 취업포털 사람인

“여성근로자를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[...]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” -남녀고용평등법 7조 2항

2007년 고용노동부는 사진, 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소를 제거한 표준이력서를 제작하여 사용을 권고하였으나 2016년 상반기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해야 했던 사람은 91.9%, 신장 및 체중을 적어야 했던 사람은 56.0%였다.

*2016 상반기 입사지원 경험자 1,681년 설문조사 취업포털 잡코리아-알바몬 공동